

<2012년 3월 16일 금요일 선물 잠언>

- 2012년 3월 12일 새벽 1시 30분 기록

1. ‘애인’이 좋은 것이 무엇이나. 잘못이 있어도 사랑하니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꼭 사랑의 조건으로 잘못했다고 회개하여라.)
2. 사람이 잘할 때가 문제가 아니다. 못할 때가 문제다.
3. 잘할 때는 사고가 안 난다. 못할 때 사고가 난다.
4. 잘하다가도 못할 때 문제가 생겨 신앙에서 탈선되고, 유혹에 들고, 죄를 짓는다.
5. 사람이 약해서 죄를 짓고 문제를 당한다고만 합리화하며 인정하지 말아라.
6. 잘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때도 잘했던 것을 생각하여라.
7. 누구나 잘하도록 존재할 만큼 힘을 줬다. 약하다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8.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창조해 놓으셨다.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인간 식으로 살기 때문이다.
9. 좁은 길을 갈 때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가다가 넘어진다.
10. 잘할 때는 험한 절벽 길을 가면서도 잘 갔는데, 넓은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 이것이 문제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라. 잘할 때가 문제가 아니다.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

11. 잘할 때는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몸이 되어 모든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못할 때는 자기를 중심으로, 태만하고 교만하며, 정신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 가다가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된다.

13.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 기도하여라.

14. 인간이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다. 항상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

15. 인간이 잘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다. 안될 때 문제가 생긴다.

16.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신이 되는 길이 있다. 신의 정신을 받아 너를 신같이 만들어라.

17. 인간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잘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못할 때, 그때 죄를 짓고 마음도 변하고 이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18. 잘할 때는 혼자 있어도 잘하고 문제도 안 생기건만, 못할 때 문제가 생기니 그때 돕고 관리해 줘야 된다.

19. 못하는 때가 생리적인 현상같이 주기적으로 온다.

20. 잘하다가도 때에 따라 못하는 것은 그 면에서 완전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21. 100%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물을 100도까지 끓여 펄펄 끓는 물에 고기를 넣고 삼듯, 완전하게 100% 해야 된다.

22. 못할 때는 정신·마음·생각·혼을 쏟아 전심을 다해 행하지 않고, 심혈을 쏟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찌개도 펄펄 끓여야 먹을 수 있다.

23. 못할 때 문제가 생기니 그때 돕고 관리를 해라.

24. 잘할 때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할 때 환경과 여건이 나빠서 못한 것도 아니었다.

25. 안될 때, 못할 때 방법을 달리하여라.

26. 못할 때, 안될 때 사탄의 침범이 많다. 이때 기도하여라. 나 예수를 불러라.

27. 기도를 못할 때, 기도가 안될 때 그 시간을 허비하는 문제가 생기고, 자기에게 문제가 생긴다.

28. 인간은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다. 못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

29. 잘하는 사람이라도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

30. 자기도, 남도 못할 때 잡아 주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어라.

31. 못할 때는 정신 문제도 있고, 유혹 문제도 있고, 사탄의 방해도 있고,

자기 자체적인 문제도 있고, 주님과 의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못하게 되니 파악하여라.

32. 신은 항상 잘한다. 완전하기 때문이다.

33. 인간도 완전하게 만들어라.

34. 신이 되려면 신과 같이 만들어라.

35. 서로 사랑하는 자끼리도 사랑할 때는 문제가 안 생긴다. 못 할 때 싸우고 헤어진다.

36. 못할 때 이성 문제도 생기고, 음란물도 보게 되고, 자위행위도 하게 되고, 자포자기도 하게 되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말씀도 안 듣게 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게 된다.

37. ‘못하는 때’란, 할 일을 안 하는 때도 해당되는 말이다.

38. 그때 그 순간 그 시간에 꼭 할 일만 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

39. 못할 때, 순간 죄를 짓게 된다.

40.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불같이 안 하면, 자기를 중심으로 되어 그 순간 죄를 짓게 된다.

41. 못할 때는 자기 육성으로, 자기중심으로, 자기 의지로 하기 때문이다.

42. 못할 때, 하던 일 멈추고 깊은 기도를 하여라.

43. 이성 문제, 돈 문제, 각종 문제를 일으킨 자들은 잘하다가 못할 때 문제가 일어났다.

44. 그 시간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 해지거나, 가기는 가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기도하여라. (곤고할 때는 기도하여라.)

45. 어린아이가 수영하다 물에 빠지면 즉시 건져 주듯이, 시험에 빠진 자와 어려움에 빠진 자를 즉시 건져 주어라.

46. 살려 놓고 왜 물에 빠졌는지 물어봐야지, 건지기 전에 물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물어보면 말 못 한다.

47. 잘할 때는 안 빠진다. 못할 때 빠진다.

48. 교회 일도 잘하다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

49. 인생 잘할 때는 문제 없다. 못할 때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발생한다.

50. 잘할 때는 기분도 좋고 전심으로 행한다.

51. 못할 때는 마음도 생각도 행실도 잘할 때보다 못하다.

52. 못할 때 자신도 정신 차리고, 옆에서 돕고 꼭 잡아 주어라.

53. 잘 못할 때 사고 난다. 정신 차려라.

54. 못할 때 더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해야 된다. 못할 때 주의 뜻을 벗어나서 행하면 더 잘 못하게 된다. 그때 문제가 솟아난다.

55. 장사도 잘하다가 못할 때, 안될 때 문제가 생긴다. 그때 운영이 안 되고 부도가 난다.

56. 못할 때를 대비하여 연습하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몸도 마음도 연단하여 숙달해야 된다.

57. 못할 때, 안될 때 문제가 일어나니 미리 대비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하여라.

58. 못할 때, 안될 때 태만하면 큰일 난다. (못하는 때일수록, 안되는 때 일수록 기도하며 열심히 행해야 된다.)

59. 섭리사를 떠난 자들은 못하다가, 결국 그 날이 닥쳐서 떠나게 됐다.

60. 계속 못하다가는 결국 절벽에서 떨어지고 만다.

61. 못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같이 하다가는 자꾸 문제가 생긴다.

62. 못하는 자를 그냥 놔두면 결길로 가고, 내리막길로 달려가게 된다.

63. 못할 때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난다.

64. 운전도 잘할 때 문제가 안 생기고 사고도 안 난다. 못할 때 사고가 나게 된다.

65. 못하는 형제들을 집중해서 잡아 주어라.

66. 건강도 잘 관리할 때는 건강하다가도 잘 관리하지 못할 때 병이 발생하게 된다.

67. 인간은 ‘선과 악’ 양쪽으로 지향하는 위치에 있다. 무엇을 행할지 결정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결정되어 떠났을 때는 날아간 새와 같다.

68. 사람은 ‘선과 악’ 두 가지를 놓고 팽팽히 겨룬다. 선 쪽으로 가느냐, 악 쪽으로 가느냐는 자기가 결정한다. 자기가 선으로 가고, 자기가 악으로 간다. 옆에서 선 쪽을 권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만, 악으로 갔다면 자기가 갔으니 자기가 다시 좋게 결정하고 자기가 다시 와야 된다.

69. 선도, 악도 본인이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라.

70. 자기가 한 것 때문에 지옥도 가고, 자기가 한 것 때문에 천국도 가고 천국에 큰 집도 얻는다.

71.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보낸 자가 돕되, 자기가 앞장서서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고로 자기가 행함의 주인이 된다.

72.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는 주님께 붙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각과 정신과 심정이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잘 못하게 된다.

73. 잘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 즉시 잘해야 된다.

74. 항상 중심과 일체 되어 행하여라. 그러면 꼭 천국에 간다.

75. 중심자의 욕을 통해서 주님의 영을 본다.

76. 나무를 심어 놓고 잘 관리할 때는 절대 안 죽는다. 잘 관리하지 못할 때 죽는다.

77. 잘하지 못할 때, 성공하지 못할 때 실패한다.

78.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79. 인간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자기 마음이니까 얼마든지 화를 안 낼 수도 있고, 악을 안 행할 수도 있다. 여기서 자기에게 얼마나 선과 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다.

80.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분이라 생각하고 선의 편이 되어, 자기 머리에서 선과 불의가 솟을 때 항상 불의의 편을 들어서지는 안 된다. 선 편을 들어야 된다. 악 편을 들고 마음을 결정하면 불의한 재판장이 되어 결국 자기가 악 편을 들은 연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게 된다.

81. 자기 생각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가 못 다스려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까지 받게 된다.

82. 잘할 때 자기를 다스리고, 못할 때 자기를 못 다스린다.

83. 못할 때 자기에게 경고의 신호가 울린 것이다.



84. 못할 때는 자기중심, 자기 주관대로 하기 때문이다.

85. 왜 구원받고 따르는 자가 중심자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대로 안 하느냐.

86.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그 귀한 구원의 점수까지 감점되어 한 차원 낮은 단계로 내려간다. 그러다가 계속 못하면 밑바닥까지 가게 된다.

87. 지금은 막바지 때라 못하면 안 되는 때다. 주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저마다 일점일획이라도 흠과 점을 없앨 때다.

88. 못하는 자는 온 교회, 온 섭리사에서 표가 나고, 잘하는 자는 온 교회, 온 섭리사에서 표가 나서 보인다.

89.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가다 죽은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 섭리사를 보고 말하기를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보다 더 잘한다!” 하고 큰소리친다.

90. 6000년 구원역사 이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최고 좋은 때가 바로 이때다. 너희는 이때를 잡았다! (이때 가장 안타까운 운명은 잡았다가 놓치는 자다. 잡았으면 놓치지 말아라.)

91. 인간이 일생 동안 3번의 좋은 때가 있다고 한다. 첫째, 태어날 때 좋고 / 둘째, 결혼할 때 좋고 / 셋째 벼슬할 때 좋다고 한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첫째, ‘신앙’으로 육과 영이 다시 태어날 때 좋고 / 둘째, 신랑 되신 주님을 맞고 휴거될 때 좋고 / 셋째, 하늘의 최고 벼슬인 주님의 신부가 될 때 좋다. 이 3가지를 모두 행하는 때가 이때이니 부지런히 행하여라.

92. 보이는 선생을 통해서 안 보이는 주님을 맞는다. ‘주님’이 영원한 사랑의 유업이다. 천국의 유업이다.

93. 잘하려면 노력해야 된다. 고생돼도 수고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힘들어도 배워야 된다.

94.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깊이 듣지 않고, 행하지도 않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지도 않고, 이렇게 부족하게 때가 못하는 때다.

95.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중심자 정신을 가지고 그와 일체 되어 믿고 때가 잘하는 때다.